

로마서 8장 31-39절(4)

- 읽을 말씀 롬 8:31-39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본문이 견인의 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 고발,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의미임을 증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견해에 대한 반론과 답변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③ 이 견해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

이 단락에서 바울은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성도들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독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현재 잘하고 있어도 훗날 일부는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이 모두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했으므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는 반론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37).**”에서 “우리” 는 문자적으로는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 전체를 뜻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중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택함받은 성도들만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29-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 미리 정하셨으니 ...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에서는 “우리” 라는 단어 대신 “그들” 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정한 대상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29-30절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울과 로마

교회성도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29-30절과 일치하지 하는 사람들, 즉 로마교회 성도 전체가 아니라 그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만 뜻합니다. 그것을 다음 구절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33)” 도 확실히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택받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35-39절은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칼빈뿐 아니라 예지예정의 관점에서 선택된 자들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견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칼빈의 경우는 절대주권에 의한 선택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예지예정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올바르게 반응할 것이어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9장을 통해 예정의 원리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모두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단지 구원받은 자들은 배교하거나 타락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면 칼빈의 5대 교리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거나 배교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믿다가 시련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눅 8:13).”**는 믿고 구원 받은 자인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하여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배교에 의한 멸망을 경고하는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 히브리서 6장 4-6절에서 **“다시 ...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은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참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라고 했으므로 전에 한 회개도 참 회개 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은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으로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즉 네 가지 조건은 일종의 자격으로 그 경험이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네 가지 조건을 진짜 경험한 자들로 참 회개를 한 자들이고 진짜 구원받은 자들인데, 타락했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6-29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26)”가 헬라어 사전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의 개종”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진짜 구원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29)”는 시제가 과거이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하거나 배교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하거나 타락하여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구원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가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택된 자들은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칼빈의 교리가 예정부터 견인의 교리까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39절은 결코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한편, 구원받은 자들뿐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사도로 선택받은 바울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고(고전 9:27), 선택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6, 8, 11장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위험성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예지예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성취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도덕적인 질서와 공의의 원칙 그리고 자신의 통치원리와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성취 가능한 구원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자신의 성품을 부인하는 일들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주권으로 임의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지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반응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나 믿음 혹은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은혜로 받는 구원과 모순되지 않듯이 은혜로 되는 택하심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지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지예정은 선택받은 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④ 이 단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

많은 이들이 이 단락을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착각한 이유는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양자 됨이 아니라 영화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선택도 이 단락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았습니다. 더글라스 무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책임 있는 결정들까지 이 마지막어구에 포함시키는가? 칼뱅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바울이 여기서 믿는 자들의 안전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결론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1-39절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외부 요소들’ 로써 우리와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증거로 31절에서는 “누가” 에 “우리” 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누가” 는 환난-칼과 병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37절의 “이 모든 일” 은 “누가” 와 병행을 이루는 환난-칼을 뜻합니다. 또한 38-39절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은 “이 모든 일” 즉 “누가” 와 병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39절에서도 “우리” 와 사망-다른 어떤 피조물은 구분되어 우리와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 우리와 우리의 선택이 포함된다는 칼빈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오용되었던 세 구절(롬 5:9-10, 8:29-30, 31-39)이 모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에서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구절은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구(롬 6:16, 8:13, 11:20-22)들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세 구절도 교리의 안경을 벗고 공정하게 보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합니다.

● 나눔과 적용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주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바르게 반응할 것이라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을 위험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반응할 때 누리게 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